

하나됨과 나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누리십시오”

< 고린도전서 1장 3절 >

-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회개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사랑방공동체학교 전체 학부모교육이 오후 3시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 연령별사랑방 연합 찬양모임이 16일(일) 오후에 자연예배당에서 있습니다.
- 연령별 전체 교사회의가 23일(일) 오후 1시 30분에 아브라함 장막에서 있습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김성기 집사 (생일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신협(현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교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2 - 11 호

2025년 3월 16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비움과 제자리

오늘도 집에 들어오니 이곳저곳이 눈에 거슬립니다. 해도 금방 어지럽혀지고 별로 티도 나지 않는 집안 정리정돈은 늘 되풀이 됩니다. 정리를 할 때마다 생각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정리를 덜 하며 지낼 수 있을까? 입니다. 요즘은 정리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집안을 정리하고 수납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 때는 TV 프로그램으로도 방영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물건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주에 3월 개학여행을 다녀오며 새 학기를 시작했는데 지난 겨울 방학부터 시작했던 학교 이곳저곳의 정리정돈이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위에 있던 도서관을 아브라함 장막으로 내리며 아브라함에 있던 것들 중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또 도서관에 있는 물건들과 책들을 내리며 아브라함 장막에도 빈틈 없이 채워졌습니다.

어제는 어린이학교 임원단과 함께 과학실로 사용하던 교실을 정리했습니다. 잘 놓아둔다고 하고선 잊어버려 몇 년만에 찾게 된 물건도 있었고 오래 전에 한 번 사용하고 언젠가 다시 사용하지 않을까? 하며 넣어놓았던 물건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까워서 못 버리고, 언젠가 쓰지 않을까 싶어서 못 버리고, 누군가 필요하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가지고 있었던 물건들이었는데 정리하고 나니 비워진 공간처럼 정신도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둘째날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짐승과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상도 뒤집어엮으셨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사람들의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차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사전에서 정리의 뜻을 찾아보니 [흐트러지거나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을 한데 모으거나 치워서 질서 있는 상태가 되게 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리전문가들이 말하는 정리의 기본도 비우기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편리하고 이쁘고 신기한 물건들이 많고 맛있는 먹거리들도 널려있는 세상에 이런 유혹에서 나의 필요를 찾아 구분하며 정리하는 것이 쉬울까요?

물건을 정리하고 비운다는 것은 그 것에 대한 나의 마음과 욕심도 함께 비우는 것을 뜻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싶었던, 채우고 싶었던, 붙잡고 싶었던 것들을 흑시, 언젠가는, 어쩌면 이라는 마음으로 꺾꽂아놓고 있는 건 아니었는지 생각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그 곳에서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정리하고 비웠으니 본래의 모습, 제자리를 찾게 하신 것입니다. 비움의 다음 단계는 제자리에 놓기 입니다. 사용하고 처음에 있던 놓여져있던 그 자리에다 다시 가져다 놓는다면 정리의 수고가 훨씬 덜할 것입니다.

새 봄을 맞아 물건을 정리하고 비워보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물건 뿐 아니라 내 마음에 가득 담겨있는 나의 욕심과 근심들을 하나님 앞에 정리하고 비워진 그 곳에 예수님의 말씀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자리잡는 사순절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주간의 말씀

“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 누가복음 13장 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135, 150 / 449

기도 : 장성아 집사

성경 : 마태복음 19장

제목 :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1. 내용: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교훈하시다. (What)

<문단구분>

1~12 이혼에 관한 교훈

13~15절 어린이에 관한 교훈

16~30절 부자청년에 관한 교훈

2. 의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Why)

1) 그리스도인은 결혼을 신성하게 여겨야 한다.

2) 하나님 나라의 덕목은 겸손이다.

3)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3. 적용: 사랑을 실천하자 (How)

1) 결혼과 가정의 중요성을 알고 사랑으로 헌신하자

2)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두자.

나의 일상

전쟁터에서 싸우듯이 날마다 아이들과 같이 사는 것은 나의 일상이다. 아침 등교 이전, 오후 하교 이후 우리 집은 언제나 난리난다. 1호는 숙제를 해야 하고 2호와 3호는 각자 좋아하는 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퍼즐을 해 달라고.... 다 엄마를 독차지하고 싶은 것이다. 아빠는 절대로 이 혼란 상태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모습이다. 1호는 2호와 3호가 너무 시끄러워 숙제를 못하겠다고 좀 조용히 해달라는 불만을 계속해서 표현한다. 어느덧 숙제를 다하고 혼자 이층침대 윗간에 MP3를 들으면서 만화책을 읽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엄마, 질문 하나 있는데요. 만약 내일도 숙제가 많으면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실지도 몰라". "안돼, 내가 과학도 많이 해야 되고 축구도....." 우리 집 1호는 숙제가 많다고 걱정한 것 아니라 오히려 숙제가 적어서 걱정된다. 왜냐하면 숙제가 많은 날에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한자공부를 빼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2호가 뽀뽀 하나라면 만족하는 여자아이라 엄마를 사랑한다고 엄마가 힘들까봐 중얼거리면서 착하게 혼자 인형한테 갔다. 엄마가 힘들어 죽으면 자기가 백설공주나 신데렐라처럼 새엄마를 모시고 살까봐 걱정 태산이다. 3호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바로 엄마, 제일 싫어하는 것은 퍼즐이다. 나름대로 엄청난 인내심을 가지고 애랑 한참 놀다가 끝내 지쳐 누워버렸다. 그래도 막내는 손에 퍼즐 조각을 들고 와서 자랑한다. "엄마 내가 잘하지? 이제 책 읽어줘야지?" "지금 엄마가 힘들어서 좀 쉬어야겠어요. 내일 많이 읽어줄게..." 1분도 안 지나 엄마한테 와서 "엄마 정신차려, 일어나, 지금은 내일이야, 빨리 읽어주세요." 지금은 내일이다, 우리 집 3호의 명언이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달았다. 1호, 2호, 3호 모두 서로 다르고 독특한 아이들이라 요구사항들이 많고 복잡하니 엄마가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하나의 틀에 아이들을 집어넣기 쉽다.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 못할 때 괴물 엄마로 변신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한 번도 엄마한테 화난 적이 없었다. 아이들은 엄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엄마는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은 나의 부끄러운 고백이다. 가족이란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는 사람들의 작은 공동체가 아닌까?

디아코니아사랑방 추첨사 사모 (2015년 3월 20일 발취)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신명기 6 : 4-5
31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영광 영광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요한일서 1 : 9
148, 89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누가복음 13 : 18-35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 하늘을 소망하십시오 ” 정재훈 목사

설교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453

410(3)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인도 : 김기환 차현주 / 봉헌위원 : 최연우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예배

공동기도문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저희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을 더욱 채워주십시오. 아멘

하늘을 소망하십시오

예수님의 탄식 헤롯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
으시고, 끝까지 지금 가시는 그 길을 가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
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탄식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자신에
게 파송된 예언자들을 죽이고, 모아들이려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이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원함 사도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
으심을 본받아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하
는 일은 뒤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목표점
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세상
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매몰
되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은 자기 충족적인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진정
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최기환 전도사 / 기도 : 전경희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꾸러기 친구들은 다섯 명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분위기가 썰렁하다거나 조용하다거나 한가하다거나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올해는 두 명의 새로운 친구가 왔는데 그것은 소우주가 두 곳 더 펼쳐진 것과도 같습니다. 나와 다른 누군가를 새롭게 알아간다는 것은 신비롭고 아리송한 미로 찾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3월은 날마다 우주 대탐험, 미로 찾기에 한창입니다.

각자의 수호천사 표 그림을 그리고, 3월 달력 그림을 그렸습니다. 함께 낙하산 천을 펼쳐 공을 굴리고 띄우고 받는 신나는 음률놀이를 했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도 했습니다.

금요일 오전에는 학교로 오기 전에 바로 고모호수공원에 가서 호수를 끼고 한 바퀴 빙 둘러 산책을 했습니다. 가파른 산길도 걷고, 운슬이 반짝이는 호수의 풍경을 구경하고, 호수 속 송사리 떼도 찾아냈습니다. 다섯 살 송아지 반 친구들도 투정 부리지 않고 거뜬히 잘 걸었습니다. 오후에는 좀 기진맥진해서 평소보다 자주 다투기는 했지만 얼른 화해하고 열심히 놀았습니다. < 교사 : 전향옥 >

어린이학교

3/10(월)~3/12(수) 대부도(안산)으로 개학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여행기간 내내 행복했습니다.

10일(월)에 축석에서 만나 방아머리해변을 향해 달렸는데 들뜬 아이들의 얘기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울려서 첫여행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해변엔 갈매기가 우리를 반겨주었고, 바다를 잠깐 바다를 만끽하고 배터지는(?) 맛난 칼국수를 먹고~ 해양박물관을 가서 선박비상 체험을 했습니다. 배에서 불이나거나 침몰이 되거나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대피요령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이들이 진지하게 설명을 듣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11일(화)은 맛난 식사후 동춘 서커스에가서 멋진 공연을 보았는데 올해가 100주년 되었다고 합니다. 90분동안 펼쳐지는 다양한 포프먼스에 계속 박수를 치게 만들더라고요. 공연을 보고 숙소 수영장에서

배움과 가르침

신나게 물놀이를 2시간동안 정말 열심히 놀았습니다. 배가 고팠는지 밥을 엄청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까지 피드백을 하고 잤습니다.

12일(수)엔 오전에 종이박물관에서 닥종이로 만든 여러 작품을 감상했는데 자꾸 만지고 싶더라고요.(눈으로만 봐야하는데) 오후엔 딸기밭에 들어서 딸기도 직접따고 먹기도 했는데 배가 불러서 먹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숙소에 아이들과 어른들이 어울려 놀 수 있도록 노래방, 트램펄린, 탁구, 농구, 배드민턴, 미니축구등 놀거리가 많아서 더 재미있게 놀았고, 식사 준비도 아이들이 조를 짜서 해서 먹고 설거지까지 해서 더 의미있는 여행이었습니다.

14일(금)엔 회장단 선거가 있었고 15일(토)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회장 이하은, 총무 최진용, 서기 김주은 어린이가 당선되었습니다. 리더십 후에 출선수범하고 경청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한학기를 보내겠다는 다짐을 응원합니다. < 교사 : 이현숙 >

멋쟁이학교

화창하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뒤늦게 녹는 눈으로 질척거렸던 땅들도 단단히 굳어가고, 멋쟁이들의 축구 경기 또한 힘차게 재개되었습니다. 같은 시간표의 일정을 반복하면서 멋쟁이들은 점차 적응을 해나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감을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각 부서나 동아리들은 각기마다 계획을 세우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실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직 새내기들은 귀여움을 받고 있는데요, 멋쟁이날(수요일)에 양복을 갖춰입은 모습은 어딘가 어색해보이면서도 사진을 찍을 때에는 멋진 포즈를 잡으려 애썼습니다. 현재 공동심화학습은 <중독>이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학년들의 숙련된 학습 활동에 열린수업에서는 지난번 교양시간에 배운 삼정생활에 대한 시험을 거쳤습니다. 아마 삼정생활 자가평가를 할 때에는 다들 자신있게 그 의미를 기억하고 피드백을 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주에는 새천년건강체조 경연대회, 생일파티, 뮤지컬 관람 등 신나는 일정이 많이 있어 멋쟁이들의 마음이 두둥실 뜨고 있습니다. 모두의 마음이 잘 모이고 즐거운 경험이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교사 : 이어진 >

대화 - 그 어려운 숙제

주중에 학교에서 아이들을 보고 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며 하루에 참 많은 말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집에 들어오면 가만히~ 조용히~ 있는 것이 마음이 편하고 쉽기 될 때도 있고, 또 어느 날은 아~ 그 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지 하는 후회가 들 때도 있습니다.

얼마 전 TV에서 상영하는 유명한 토크쇼에서 대화에 실패하는 요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에 그 사람의 상황과 마음을 공감해야 하는데 화가 나거나 그 상황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우울해지면 그 때에는 공감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사라지고 무의식적으로 말하게 된다고 합니다. 평소 공감보다는 상황파악을 우선으로 하는 저에겐 솔깃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말하게 될 때에 대화에 실패하는 6가지 방법으로 말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 첫번째가 상대를 판단하는 것, 너 그것밖에 안되니? 두번째가 상대를 비난하는 것, 니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세번째가 상대에게 강요하는 것, 너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니? 네번째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다섯번째가 상대를 당연시하는 것, 네가 지금 몇학년인데 그러니? 그리고 마지막 여섯번째가 다 너를 위해 그러는 거야라고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듣고 보니 참..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표현들입니다. 함께 살아갈 때에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나 참 지켜지기 어려운 숙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화는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공감하며 인내심으로 실타래를 풀어가는 일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 안에 사랑의 언어들도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정다운 전도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도 : 장영미 전도사

찬송 : 436, 408

성경 : 마태복음 24:30,36-43

말씀 : 열매 맺는 삶을 살자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 한국으로 이주하는 이주민들의 신앙 > 한국으로 유입되는 이주민들의 신앙생활을 위해 교회들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수 있도록.
나가서 전하려는 선교에 대한 열정이 이주민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 화합의 역할 감당 >
기독교인들이 참 복음의 뜻을 알고 화합을 위해 기도하며 앞서 노력하기를 위해.
믿는 정치인들이 대립이 아닌 화합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3.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위해
 - 1) 어린이학교 여행 무사히 잘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 2) 건강에 이상이 있는 분들을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 생활공동체 소식 >

한 주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곳곳을 손보고 주변을 정리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되기 전 밭을 정리하고 비닐이나 부수적인 집기들을 정리했습니다.

몸이 아프고 불편한 식구들이 있어 많이 마음을 쓰며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빨리 모두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 장영미 전도사 >